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낙원과 음부 이야기

성경: 누가복음 16장 19~26절

Tag: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눅16:19-26)

천국과 지옥, 낙원(paradise;파라다이스)과 음부(hades헤이디스;지하 땅 속)

기본적으로 이 구분은 3차원적인 구분은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이 영역은 인간들의 상상력의 산물인 매트릭스 공간도 아니다. 실재하는 공간이다.

물론 이 영역들은 현대 물리학 기술로는 측정 불가능하다.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직 인간의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지, 4차원이 허구라는 뜻은 아니다.(증명될 수는 없지만, 수 없이 많은 증언이 있다.) 따지고 보면 4차원에 속한 자들은 3차원을 답답해하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감옥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 뻔하다.

낙원은 주로 신약성경에서 소개되고 있고, 음부는 주로 구약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다. 낙원은 긍정적인 의미로, 음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구약의 음부를 신약의 낙원으로 발전했다고 이해하는 자들도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상황을 빗대어 예화를 말씀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나사로가 간 곳이 낙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낙원에 간 나사로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또 성경은 그보다 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옥을 형벌의 장소요, 심판의 장소로, 천국은 상급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영원한 복락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천국 개념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된다. 하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등. 천국은 내 마음 속 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러므로 천국은 3차원적이면서 4차원적이며, 시공을 초월한 개념이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개념도 있으니, 천국 개념은 대단히 중첩된 개념이다.)

천국과 지옥(두 단어를 함께 사용할 때)은 종말론적인 개념이다. 최후의 상급과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천국은 현재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세에서 천국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고, 현세에서 지옥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간다.

전도란 지옥의 영성을 소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한다.

성경은 천국을 낙원으로, 지옥을 음부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측정하거나 탐사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설명이나, 추측 자체가 모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제시된 성경을 기초로 분명한 경계는 유추해 볼 수 있다. 기타 임상체험을 한 사람들과 심리학, 뇌과학 등 현대의학을 통하여 일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은 우리가 도무지 지성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 때에야 비로소 대면하여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전13:10)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13:12)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13:8)

임상체험이란, 사고로 생리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깨어나면서 격계 된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일종의 동일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증언을 통해서)

주로 갑작스런 사고를 통해서 생리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영혼이 순간적으로 육체를 이탈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평온하고 신비로운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상상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주로 죽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게 되고, 영혼은 자신의 죽은 몸과 주변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대개 다시금 죽은 몸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그래서 법적으로 숨이 끊어진 지 24시간 이후에 입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입사체험에 관한 묘사는 지역과 종교와 문화와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불분명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짐작컨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체험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낙원 경험이나 음부 체험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왜 이런 입사체험이 보고되는 것일까? 성경적인 답변은 공중권세에 관한 이해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6:12)

에베소서에는 분명하게 현실 세계에도 악한 영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통치자나 권세들은 이런 악령들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 같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귀신들과 관계가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하는 낙원 비슷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영들과 그 쫓겨난 이들이 존재하는 영역도 있으며, 천국에도 갈 수 없고, 그렇다

고 지옥에 갈만한 존재가 아닌 자들이 거하는 임시 처소가 있고, 분명히 나중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 거하는 음부가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귀신들은 이 음부에 가 있는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후손들에게 접근해서(주로 꿈을 이용) 죽은사람 흉내를 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 세속적인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게 된다.

사모님도 임사체험을 하였다.

우선 임사체험은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사를 만나 이야기 하였고, 고등학생 때는 매일 교회에 들러 기도하였으며, 그때마다 천사가 와서 기도 항아리에 기도를 담아 보좌로 올라가곤 하였다.

기도가 연기가 되어 단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득 차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감.

다음 천사가 빈 단지 들고 다시 기도를 받음. 약 4리터. 사람인데 날개는 없음.

청소하는 천사는 작은 천사.

돕는 천사는 키가 큰 남자 같음. 편하게 옆에 앉아 있음.

21-2세 정도. 꿈같은 환상;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3개를 통과한 경험을 하게 됨. 맨 마지막 구멍은 허리까지만 들어가서 왜 통과할 수 없느냐고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순간 옆에 나타나셔서 어깨를 만지주자 통과 함.)

끝없이 넓은 물로 된 계단을 수 많은 사람들과 올라가게 되는데, 어마 어마한 사람들이 미끄러져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짐. 273장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올라가게 됨.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많은 사람이 출발하나 떨어지는 사람들

이 많음. 마지막까지 올라가 보니 수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를 빨고 있음. 이미 깨끗한데도 더 깨끗하게 하려고 빨고 있음. 계단은 끝이 났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내리 쬐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계단이 만들어지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심.

잔치 심부름 환상; 21세 경. 끝없이 넓은 초원에 잔치상이 펼쳐져 있음. 손님들은 얼마 없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고 계심. 도와드리려고 하자, 너는 요리에 손대지 말라. 다만 상으로 음식을 날라다 놓으렴. 음식은 예수님만 요리하심. 음식은 예수님이 만들고 너는 나르는 봉사만 하라. 그래서 그런지 선린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껏 음식을 만드는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알파잔치, 송내 예배당 전도 잔치에 그렇게 음식으로 봉사하게 된 것 같음.

임사체험; 광주에서 목회할 때 1993년 쯤. 서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손위 처남이 운전하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남. 5톤 트럭이 졸다가 우리 차 뒤를 들이받았는데, 순간 정신을 잃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됨. 자녀나 남편이나 그 무엇도 보좌 앞에서는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함. 다만 하나님, 저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해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겠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해요. 그 말만 계속 반복함. 병원에 실려가서 깨게 됨. (이것은 확실히 임사체험임.)

이로 보건데, 4차원의 초월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나,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경험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고 요약할 수 있음. 각 나라가 다르듯, 각기 가게 되는 영역이 다른 것 같음.

꿈이나 환상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영적 경험을 3차원적인 세계와 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음부와 관련된 경험 중, 광주에서의 경험은 술주정꾼을 전도하다 계속해서 술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동안 지쳐 있는데, 그가 제발로 무섭다고 나를 찾아 옴. 며칠 전부터 검정 옷 입은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함. 그리고 삶을 체념한 듯한 말을 함. 그래서 기도해서 보냈는데 며칠 후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장례를 치러 줌. 그가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갔는지, 부족해서 낙원에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면 음부에 갔을 수도 있음.

꿈이나 환상이나, 임사체험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자신이 평소에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자신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평소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영적인 주소가 됨.

이 말은 내가 나의 영적인 주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나의 현 주소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하신다고 보면 됨. 즉 맨날 무당하고 놀고 점보고 굿하는데, 천국이나 낙원 가는 것은 아님.

19 그(예수님)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

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벧전3:19-21)

-해석이 분분하나, '욕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에게 선포하심.
그들은 오랫동안 음부에 갇혀 있었음.

-물은 구원의 표;악을 씻어 버림. 세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회개를 뜻함.

-어떤 자들은 이때의 욕을 당시의 로마 감옥에 가서 전도하셨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러면 20절은 어떻게 해석할건데?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27:52-53)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구약의 성도들이
음부에 있다가 일어나 몸을 입고, 거룩한 성에 들어감.(천국?)

-사무엘서에 보면 죽은 사무엘으리 사울왕이 불러낸 기록도 있음.

-같은 음부지만, 욕이라는 표현은 없음. 음부라도 성도의 있는 곳과
죄인의 있는 곳이 다름. 그렇다면 낙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각기 떨어지는 곳이 다를 수 있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인가? 그저 착한 일 하고 죄 안
짓고 대충 살다 낙원에 가면 그만 아닌가?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
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2-13)

이로 보건대 천국에도 사람에 따라 상급이 각각 다르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으며,

낙원도 어마 어마한 사람들이 가게 되고 임사체험자들의 묘사에 의하면 지옥까지는 아니나 결코 천국도 아니며, 천국에 비하면 밋밋하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보다는 행복한 듯하나, 과연 내가 낙원에서든 어느 지점에 가게 될지 모르고, 음부나(구약에서는 음부고, 신약에서는 낙원인지 모름) 지옥도 그 행위대로 천차만별의 단계가 있는 듯함. (일단 음부는 구치소 개념이고, 지옥은 감옥 개념. 낙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대기 장소이나,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지, 시험을 치르게 될지, 형량을 채우게 될지는 아무도 모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계가 낮은 낙원이나, 혹은 낙원과 음부 중간에 끼어 있어서 마귀들의 수중에 들어갈 자들도 있을지 모르고,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될지도 모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갈 자가 정해지는 것은 확실함.

종말도 있고, 대환란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을 것이나, 오직 성도는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 가게 됨. 단계가 낮은 낙원에서는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로 인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래서 낙원이라고 해서 현재의 우리의 형편보다 신앙생활이 더 나올거라는 보장은 없을지 모름.

그러므로 우리는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2-13)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함.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장 갈뎡의 경건영성

성경: 고린도후서 3장 7~18절

Tag: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히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3:7-18)

갈뎡의 신학은 경건신학. ‘기독교 강요’의 핵심도 경건.

- 그의 경건신학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 시작은 하나님 사랑.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활발하고도 깊은 상호관계.

- 갈뱅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음. 당시 영성 운동이 활발했으나, 지성에 입각한 성경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 '영성'이라는 단어 보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시함.

칼빈주의 5 대 강령 / The Five Points of Calvinism(TULIP)

1. 전적인 무능 또는 전적 부패 /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2. 무조건적 선택 / Unconditional Election
3. 특별한 구속 또는 제한 속죄 / Limited Atonement (Particular Redemption)
4. 성령의 유효하신 부르심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 Irresistible Grace
5. 성도의 견인 / Perseverance of the Saints

갈뱅의 일생: 1509년 7.10 프랑스 파리 북부, 누아용에서 출생.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 걸었을 때 갈뱅은 겨우 9세.

아버지는 교회 법원의 법무관. 아들을 성직자로 키움. 공부 잘하고 뛰어남. 14 살 때 파리로 유학. (도착 당일 종교재판과 화형을 목격)

신학에서 법학으로 진로 변경. 그로 인해 에라스무스를 만나게 됨.

당시 당국은 헬라어 공부를 금지시킴. 성경원전을 읽으면 가톨릭을 비판하게 될 것을 우려함. 비밀리에 원전을 공부함.

법과대학 법학석사로 졸업하게 되는 해에 아버지가 죽고 형은 이단으로 몰려 처벌당함.

- 그 일을 계기로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에 몰두함.

- 25세때 성직 특권을 모두 포기함.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중대 결심.

-1533년10월 31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날.

-소르본느 대학의 학장 취임 연설문을 깔뱅이 써 주었는데, 개혁의 원리가 담겨있었다. 의회는 학장 자리를 취소하고, 깔뱅은 스위스로 도망하게 됨.

-1534년 '기독교 강요' 초안 완성.

-1536. 그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의 지도자로 초청받음. (윌리엄 파렐의 집요한 설득)

*깔뱅의 회심;-그는 처음에는 고질적인 교황주의, 미신에 열정적. 하나님은 그를 갑작스럽게 회심하게 하심. 성경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됨으로 회심하게 됨.

롬1:18-25;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한 회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침.

*완전한 경건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것.

*회심은 즉각적인 완성이 아닌, 참 경건을 향한 첫걸음.

*제네바에서의 설교사역과 로마 가톨릭과의 대결. 지성의 대결, 성경말씀을 통한 대결.

*목회에도 힘씀. 교회 정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성찬 회복, 교독문 도입, 어린이 신앙교육, 결혼은 성직자가 집도, 평신도 지도자를 감독으로 임명 당회 시작.

*시의회와 마찰. 성찬 거부;불경건한 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시의회는 깔뱅에게 3일 안에 제네바를 떠나라고 명령함.

*4년간 스트라스부르 난민교회에 머뭍.(마르틴 부처의 초청) 이곳에

서 과부와 결혼함. 극심한 가난에 시달림.

(제네바는 파리에 인접한 스위스, 스트라스부르는 스위스에 인접한 파리)

-종교개혁 계속;권징, 설교 중심의 예배, 시편 찬송, 오르간 사용 금지, 기도문 폐지, 즉흥기도 도입. 기독교강요 개정. 일주일에 4번 설교.

*1541년 다시 제네바로부터 청빙. 제네바에서 23년 목회후 죽음.

-당시 제네바는 타락의 도시가 됨. 그는 순교적 결단으로 제네바로 향함.

-예배의 횟수를 늘림. 주일 동트면 예배, 오전9, 요리문답12시, 3시 예배, 주중 월, 수, 금 예배. 죽을 무렵에는 날마다 예배.

-당회를 통한 엄격한 권징. 일체의 죄도 용서하지 않음. (당회가 조사하여 당국에 처벌을 요청함)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이단. 삼위일체 부정, 신성모독, 동정녀 탄생과 기적 부정, 고위 성직자 모욕)

*제네바 아카데미. 유럽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엄격한 교과과정. 오전6시, 7시에 시작 오후4시에 종료, 매주 수요일 아침, 주일에는 3회 예배 참석.

*1564년 건강악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 53세.

